

#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이 창 식  
(세명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 II. 설문대할망 각편원형의 전승과 소통
- III. 설문대할망설화와 스토리텔링 개발 전략
- IV. 맺음말

K C I

### <국문 요약>

설문대할망은 제주도 창조 신격(神格)이다. 제주 전승주체는 찬양하면서도 비극적 실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설문대할망설화는 신화적 상상력과 진정성을 주고 있다. 제주도가 꿈의 신화섬이라는 랜드마크를 확보할 수 있다. 감성창조의 섬, 그 활인(活人)의 아이콘에는 제주신화가 있다. 세계문화유산 1번지가 되기 위해 신화의 가치창조는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설문대할망의 브랜드가 가치창조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라고 보았다. 그 문화산업적 장소성이 제주돌문화공원이다. 아울러 제주 본풀이는 세계 수준급의 무형유산이다. 제주신화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화가 시급하다.

설문대할망설화에는 제주 민중의 절대적 초월자라는 점에서 신비성과 환상성이 있다. 설문대할망설화 전승은 문화자원의 진정성과 흥미로운 현대적 매력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대할망의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 그에 대해 신화문화론(神話文化論)의 시각에서 검증하고 이를 OSMU(One Source Multi Use)의 문화콘텐츠 창작분야와 관련 축제상품의 세계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전설의 물적 증거를 보이는 설문대할망 관련 장소자산 곧 경승유산과 상상력 등을 IT와 학문적 융합을 구축하고, 설문대할망의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스토리텔링뱅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설문대할망 스토리텔링 창작에는 감성, 재미, 환상 등 창조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설문대할망의 지적재산권 확보는 정체성의 사실 근거와 제주문화 기반 위의 상상력에 좌우된다. 설문대할망 스토리텔링 구상과 문화상품 제작과 홍보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인물콘텐츠 확보는 목숨론, 은리원론, 명품론에 달려 있다. 설문대할망신화학회 추진, 설문대할망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정립, 설문대할망과 제주고도유산 활용의 문화관광사업 추진, 제주돌문화공원의 장소예술성과 공연화 등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 발굴,

설문대할망 스토리텔링 시놉시스 전시관 상영방안 제시, 설문대할망 브랜드 관련 상품 등록 방안, 신화캐릭터 상품 발굴 등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 방면의 전문가 의견과 산학연관 합동연계사업이 동시다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설문대할망의 신화감성의 성격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문대할망설화는 전설과 민담의 재편과 변이가 이루어졌으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창세신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한라와 탐라 형성의 어머니라는 특성은 다양한 화소의 매력적인 유전자로 인해 제주돌문화공원이란 테마파크를 만들어냈다. 결국 제주 대표 아이콘이 되었다.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러와 신화장소성의 이미지화가 상생된 신화박물관인 셈이다. 더욱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 지속과 변화된 의례적 요소가 설문대할망제로 재현되었다. 설문대할망제는 세계신화축제로 진전하기 위해 제주돌문화공원이 있어 매우 희망적이다. 제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애니메이션, 백록담 오페라 등으로 제주 여성성이 여러모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현대화하고 있다. 신화적 상상력은 제주돌문화공원이 보여주고 있듯이 문화산업의 원천이 되고 있는 추세다. 돌문화공원과 설문대할망신화 키워드로 제주신화의 세계화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주제어: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설화, 제주, 설문대할망제, 제주돌문화공원, 스토리텔링, 원소스멀티유즈.

## I. 머리말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를 창조했다고 전해지는 거인형(巨人型) 여신이다. 제주도에 설문대할망이 만들었다는 산, 바다, 섬, 바위 등의 자연물이 많다. 제주도 전체가 설문대할망의 걸작이라고 할 정도이다. 설문대할망설화는 신이적(神異的) 초인담(超人譚)인데 거인설화로 분류된다. 오늘날 전해지는 설문대할망설화는 제주도민이라면 낯설지 않다. 그만큼 일반적이라 할 만한데, 정작 그 주인공을 설명함에 전승자들은 자신이 없다. 그만큼 전승되는 설화 각편이 길지 않고, 논리정연한 구조를 갖추지 않은 채 과편화된 탓도 있다. 또한 오늘날까지도 설문대할망은 다른 전설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설화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여신(女神)이라 할 수 있다. 곧 한라산을 베개로 삼고 누웠던 산좌(山座)의 전형적인 모습이다.<sup>1)</sup>

설문대할망설화는 천지자연기원의 창조신화라는 성격을 지닌다.<sup>2)</sup> 설문대할망설화를 비롯하여 관련 자료들에 대한 통합적 해석과 가치창출의 진정성(眞正性)이 전제되어야 한다. 분석 위주의 신화해석학 기반에 인문학의 학제적 통섭이라는 전략적 읽기가 필요하다. 설화인물 원형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재창조의 논의는 분명히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화인문자원은 문화감성시대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이 된다. 설문대할망제 - 제주설문대할망축제<sup>3)</sup> - 는 제주돌문화공원과 함께 문화콘텐츠 산업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 한류와 세방화(世方化)의 흐름 속에 선구자적 신화캐릭터의 원형과 정체에 대한 브랜딩은 중요하다.

1) 박중성, 「비교신화의 관점에서 본 설문대할망」, 『구비문학연구』 31집, 한국구비문화회, 2010, 235~265쪽.

2) 이창식, 「설문대할망」,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8, 134-136쪽.

3)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제』(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진기록자료집), 2011.1.1. 이 글에서는 편의상 ‘설문대할망제’를 ‘설문대할망축제’와 함께 표기한다.

최근에는 문화공동체의 정체성과 활성화 측면에서 특정 신화캐릭터의등장이 당연시되고 있다. 신화 원천자원을 통해 문화창조산업(文化創造産業)의 지속가능성과 가상적 미디어의 미래성에 대한 융합학제가 강조된다. 팩션(faction) 신화의 담론은 설문대할망 관련 문사철 인문자원이 마이크로블로그에서도 창조적 요소로 새롭게 활성화되리라는 전망이다. 지식창조산업 분야로서 브랜드와 스토리텔링 문화상품은 새로운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감성세계의 결정체다.

설문대할망 스토리텔링론에 대한 팩션창조산업은 문화산업의 흐름이 그러하듯이 진행형이다. 설문대할망을 오늘날 되살려내는 일은 역사적 사실과 있음직한 상상력의 융합 곧 팩션에 의해 가능하다. 설문대할망 유산에 현대적 감성(感性)을 불어넣어 재창조하는 일이 값지고 현대예술적인 것인데, 장소성 자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제주돌문화공원에 대하여 N7W재단(설립자 버나드 웨버)에서 공식 심벌을 세우겠다고 한다. 세계 7대 자연 경관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켰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직 본풀이와 신화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제주돌문화공원의 신화장소성(神話場所性)은 가치부여를 통해 세계화 추진이 장·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설문대할망유산의 평가와 원형 활용 작업은 융합인문학의 근거로 정밀하게 진행하되, 문화적 개연성을 따지고 섬세하게 가치창출을 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고 문화기술이 고려된 지금 여기의 공감대 만들기가 중요하다.<sup>4)</sup> 필자는 진작부터 본풀이 의례의 현장장소성과 구술신화의 연관성에 대한 통합학문의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 제주돌문화공원이 세계 수준의 테마파크로 진전하는데 힘입어 제주신화의 세계화는 신화적 상상력의 가치창조와 맞물려 있다. 이미 중국은 창세서사시로 불리는 메이거(梅葛: 운남성 추송시), 구에서사시 화가(花歌: 회족 지치구 은하시) 등을 국가급 무형문화재(비물질문화유산)로 승인하고

4) 최혜실, 「문화기술과 스토리텔링의 결합」,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2006, 103~108쪽.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감안하여 제주본풀이로서 제주신화의 등재화에 대한 담론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 II. 설문대할망 각편원형의 전승과 소통

설문대할망 캐릭터는 문화감성시대에 더욱 매력적이다. 제주도다운 신격(神格)인데 어머니 같은 지킴이 이미지를 지녔다. 어머니신화의 본향적 형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설문대할망설화에는 구비적 파편성과 역사적 왜곡성-남성 중심의 사회 재편과 제주의 역사적 굴절-때문에 상당한 진실과 오해가 내재되어 있다. 설화의 수용적 층위를 고려하여 원형과 변이과정을 추적해야 한다. 특히 서불일행의 오백 명 이동담<sup>5)</sup>, 삼성(三姓)과 대결담, 수렵시대의 성 관련 외설담 등은 제한적이다. 원형과 파편에 대한 층위별 인식과 수용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본풀이 속의 설문대할망 유사 형상도 주목해야 한다.

설문대할망의 가치창조는 설문대할망의 원형과 상징을 미래지향적으로 읽어내는 데서 비롯된다. 무엇보다 어머니 신화담론의 탐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맥락화, 음문(陰門)의 생생력 상징화, 자연지명물의 명소화 등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이나, 점잖고, 권위적인 신화가 아니다. 원초적인 증거물을 바탕으로 제주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설화이다.<sup>6)</sup> 거인설화의 단계적 모습이 있다.<sup>7)</sup> 서사성은 약하나, 신성성의 지명적 징표가 뚜렷하다. 지명은 명승자연유산적 가치가 있어 시사

5) 이창식, 「서불설화의 동아시아적 성격」, 『어문학』 88, 한국어문학회, 2005, 231~252쪽.

6) 허남준, 「본풀이의 과학과 철학」,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탐라문화연구원, 2011, 146~147쪽.

7)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40~41쪽.

하는 바가 크다.

아득한 옛날에 제주도에는 ‘설문대할망’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할망은 어찌나 키가 크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아서 누우면 발이 서귀포 앞 바다에 잠겼다. 그리고 발로 물장난을 했다. 서귀포 법환리 앞 바다에 있는 섬섬의 커다란 구멍 두 개는 할망이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우면서 발을 뺐었을 때 잘못 하여 두 엄지발가락이 닿아서 생긴 구멍이다. 할망은 마음씨가 착해서 제주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섬들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키가 큰 설문대할망은 육지를 왕래할 때 신발을 벗고 치맛자락을 살짝 들고 성큼성큼 걸어서 목포와 제주도 사이를 다녔다. 그때에 할망의 키가 얼마나 크던지 제일 깊은 곳이 그미의 무릎까지 밖에 차지 않았다. 제주도 용담의 물은 할망의 발등에 겨우 졌다. 서귀포 서흥리의 물은 무릎에도 미치지 못했다. 할망은 빨래를 할 때면 으레 한 발을 제주도 동북쪽에 있는 성산 일출봉에 던고서 바닷물로 빨았다.

할망은 키가 크지만 힘도 아주 세었다. 한라산이 높은 것이 할망이 흙을 치마폭에 싸서 담아다 부은 것이다. 그리고 흙을 들고 갈 때 조금씩 흘린 것이 한라산 들레에 있는 산들이다. 하루는 할망이 한쪽 발을 성산면 오조리에 있는 식상봉에 디디고 앉아서 오줌을 누었다. 그랬더니 그 오줌줄기의 힘이 얼마나 세던지 산이 무너지고 거기에 강이 생겼다. 이때 산이 하나 무너져 떠나려간 것이 바로 ‘소섬’이다.

표선면 해안에 있는 백사장도 설문대할망이 만든 것이다. 백사장이 있는 그 곳은 본래 물이 깊어서 파도가 일면 바닷물이 마을까지 들어와 피해를 주었다. 또 아이들이 놀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하였다. 이것을 본 할망은 주민들을 가엾게 여겨 하룻밤 사이에 나무를 베어다가 바다에 깔고 모래로 덮어 썩워 바다를 메웠다. 그리하여 오늘날과 같은 백사장이 생겨 안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조수가 나간 다음에 백사장에 있는 모래를 헤쳐 보면 붉은 나무들이 썩은 채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

키가 크고 힘이 센 할망은 먹는 것도 여간 많지 않았다. 하도 많이 먹기 때문에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수수범벅을 만들어 먹었다. 할망은 배가 고프던 참이라 실컷 먹었다. 그리고 똥을 썼는데 그것이 곧 농가물이라는 곳에 있는 궁상망오름이다.

마음씨가 착한 설문대할망도 더러는 심술을 부릴 때가 있었다. 할망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다. 끈 키가 너무 커서 옷을 제대로 지어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사람들과 의논한 결과 섬사람들이 명주 백 필을 모아 할망의 속옷을 만들어주면 할망은 제주도에서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명주를 최대한 모았다. 그러나 아흔아홉 필밖에 모으지 못해 할 수 없이 발지 가랑이 한쪽이 조금 짧은 옷을 지어 바쳤다. 할망은 화가 나서 다리 놓는 일을 그만 두었다. 그때 할망이 다리를 놓으려다가 그만둔 곳이 조천리에 있는 ‘영장매코지’라고 한다. 그곳에는 아직도 다리를 놓으려던 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한다.

- <설문대할망><sup>8)</sup>

이 <설문대할망>은 흔히 알려진 전승물을 조합한 각편<sup>9)</sup>이다. 전설적, 민담적 형태가 혼효된 천지창조신화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설문대할망과 같은 신화인물에 대한 학술적 검증 작업에서, 문화콘텐츠학 융합성과 응용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로의 전환은 분명 생경한 일이다. 설문대할망을 원천자원으로, 문화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순수인문학적 차원과 일정한 거리가 있다. 물론 신화학적 측면에서 설문대할망의 가치를 순수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순수한 의미의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의 연구가 강구되어야 한다.<sup>10)</sup>

설문대할망에 대한 가장 오래된 근거 자료는 장한철의 『표해록(漂海錄)』이다. 『표해록』에는 1770년(영조46) 과거에 응시하려고 배를 탔다가 표류하던 중 멀리 한라산이 보이자 선인(船人)들이 ‘백록선자(白鹿仙子)’와 ‘선마선파(洗麻仙婆)’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11)</sup> 또한 신

8) 이창식, 「설문대할망」,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8, 134~136쪽.

진성기 『남국의 신화』, 현용준 『제주도 신화』,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참조

9) 조합한 각편은 기존 흩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줄거리를 구성한 것이다.

10) 이기상, 「지구 지역화와 문화콘텐츠 - 지구촌 시대가 기대하는 한국문화 르네상스」, 『인문콘텐츠』 8집, 인문콘텐츠학회, 2006, 7~10쪽.

11) 장한철, 『표해록』(1771년 1월 5일). “白鹿仙子活我活我” 구절 주목.

으로 모신 흔적이 보인다. 한라산 산정 호수를 백록담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백록선자는 한라산신을, 선마선파는 설문대할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천제(天祭)의 전통에 대한 구체적 신격으로 보인다.

(필자: 오 대심 빌레에 파진 응동이 말이쥬예?) 응. (필자: 건디 할머니 옛날 산신제도 해나수파?) 해났쥬. (필자: 거문 산신제에 설문대할망 소리도 이서나수 파? 사설중예?) 넷날 해나긴 했는디 몰라. 우리 젊을 때까지 불공 드릴 때 해났쥬. 저굴막(舊左邑 東福里)인가 벨방(舊左邑 下道里) 심방이 그거 잘 해났쥬.

- <설문대할망> 중 일부<sup>12)</sup>

1950년대까지 한라산신을 설문대할망으로 인식한 듯하다.<sup>13)</sup> 설문대할망은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는 없다. 『표해록』에서 ‘선마선파’ 또는 ‘선마고’로 불린 것 이외에 다른 용어는 없고, 1960년대에 와서 수집된 구비설화 자료에는 ‘선문대할망’, ‘설문대할망’, ‘설명두할망’, ‘세명뒤할망’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양하게 변이되고 있음이 확인된다.<sup>14)</sup> ‘선명티할망’은 본풀이 무가에서 보인다. 이원조의 『탐라지』 기문편에 나오는 ‘옷 한 벌’의 기록으로 보아 제주도민이 지속적으로 설문대할망의 실체를 인식해 온 듯 하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

‘바지 잃은 사돈 이야기’가 끝나 한참 웃고 다시 잡담을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다. 선문대 할망, 설문대 할망, 설명두 할망, 세명뒤 할망 등이라 일컬어지는 이 거녀(巨女)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다. 짤막짤막한 단편적인 에피소드로 전승되는데, 이 여인의 거녀적 모습을 묘사하는 요소가 가장 많다.

- 
- 12) 이성준, 「설문대할망설화 연구」, 『국문학보』 10, 국문학회, 1990, 80쪽. 제보자 김수동(여·79), 1988년 11월 16일 조천읍 조천리 3104-7 김수동 할머니 자택에서 이성준 채록.
- 13) 이성준, 「설문대할망설화 연구」, 『국문학보』 10, 국문학회, 1990, 62쪽. 이 논문은 일찍 설문대할망에 대한 역사적 추이를 짚어낸 점에서 돋보인다.
- 14) 조현설, 「마고할미, 개양할미, 설문대할망」, 『민족문화사연구』 41호, 민족문화사연구회, 2010, 141쪽.

설문대 할망이 있어나십주(있었읍시오).

원 그건 모름주. 거 뭐, 비단 백필만 허영 소중기(속웃) 맨들어 주민(만들어 주면) 추즈도(까지 다리(다리) 놔 주멘(놓아 주마고) 허었다고.

주문(주문) 흥 필이 부족하여서 못하여 주니 걸 아이 허여 쥐 부렀다고.

겨니(그러니) 설문대 할망이 경허여도(그리해도) 죽은장오리(한라산 허리에 있는 물이름)에는 빠전 죽었다고 하니 죽은장오리가 원 그렇게 깊은가(깊은가) 모르겠어, 그렇게.

한라산 머릿박(머릿박)하고 사스(泗水)하고 추즈(楸子島)는 발 걸치고 허연 뉘난(누웠던) 할망(할머니)이라고 하니, 허허허. 엉뚱한 할망이주.

그 할망이 경 허였주게(그리 했지요). 한라산 우의(위에) 가가지고 옹<sup>15)</sup>(이렇게) 가달(다리) 별견(벌려서) 오줌을 싸는디, 포수가 각록(角鹿)털을, 사슴털을 다 올려가지고(물아서) 총으로 쏘을라고 거, 굴 속에 곱아 부러(숨어 버려). 어, 보니, 옹<sup>16)</sup>(이렇게) 보니 엉큼한 할망인디, 할망(할머니) 그디 가 들어가 부렸어, 각록이. 하하하하.

[조사자 : 각록이?]

각록이. 들어가 근처리와가니 오줌 싸니 것이(그것이) 내가 꿔었다고.

[조사자 : 아, 아, 아.]

설문대 할망이 크긴 커난(컸던) 모양이라 양. 각록 으나문(여남은) 개가 그디(거기) 들어가게쿠름. 허허허허.

[현원봉 : 옛, 말도. 허 허 허.]

- <설문대 할망><sup>17)</sup>

이 각편이 전승의 원형적 의미를 여럿 내포하고 있다. ‘한라산 머릿박하고’ 성기에 사슴 여러 마리가 들어왔다는 설문대할망이 그려지고 있다. 설문대할망스토리에선 주체성, 인간성, 창조성, 미래성 등이 녹아 있

15) 원래 책에는 세로로 ‘ㅇ:ㅇ’로 표기되어 있으나, ‘한글’에서 찾을 수 없어서 ‘옹’으로 표기함. 이러한 표기 방식은 자료의 실상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야 한다.

16) 위의 각주와 같음.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북제주군 구좌면 실화 45」, 『한국구비문학대계』 9-1(제주도 북제주군편), 1980년, 200-202쪽(서김녕리 용두동, 1979.4.22, 현용준, 김영돈 조사. 안용인, 남74).

다. 설문대할망 원형은 설문대할망의 지명적 창조의식과 생산성을 원천으로 한다. 내면의 성숙한 생생력의 감성이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거나 공감을 자아내어 함께 하고 싶은 정서를 주는 배려로 작용한다. 설문대할망이 한라산, 오름, 섬, 기암 등의 제주 지형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보고 국토 창건이라는 신화적 성격이 있다고 하여 천지개벽 신화의 창조신으로 여기기도 한다. 『표해록』에서 표류인들이 기원했던 ‘선마고’가 설문대할망과 동일인물이라면 민속신앙의 대상인 셈인데,<sup>18)</sup> 오늘날에는 제의와 관련된 그러한 신격 요소가 약화되었다. 제주도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구전신화가 전승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격 요소가 본풀이의 전설적 요소로 변이된 듯하다.<sup>19)</sup>

설문대할망설화가 특이한 것은 창조성을 지닌 증거물이라는 사실이다.<sup>20)</sup> 생활방식에서 보면 빨래할 때 어찌하였다는 각편이 많다. 동쪽에서는 우도와 일출봉, 서쪽에서는 가파도와 마라도를 좌우 발판으로 하여 남쪽의 지귀도나 북쪽의 관탈섬을 빨래판으로 삼아 빨래를 하였다고 하거나, 한라산의 백록담이 움푹 파인 자리에 머리를 대고 베개로 삼아 누우면 북쪽으로는 관탈섬에 다리가 닿고, 남쪽으로는 문섬, 범섬에 닿았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크기를 설명하기보다 상상 속에 맡기면서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섬을 증거로 제시한다. 제주시 오라동 한내(한천) 고지랫도에 모자 모양으로 구멍이 파인 큰 바위를 설문대할망이 썼던 감투라 하거나, 큰 바위가 띄엄띄엄 몇 개 서 있으면 할머니가 솔을 걸어 밥을 해 먹은 바위라고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키가 너무 커 놓으니, 할머니는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을 것이 뻔하다. 그래서 속옷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였으나 1동이 모자

18) 전경수, 「탐라신화의 고금학과 모성 중심사회의 신화적 특성」, 『세계 신화의 이해』, 소화, 2009, 98~99쪽.

19) 조현설, 「마고할미, 개양할미, 설문대할망-설문대할망 전승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41집, 민족문화사학회, 2009.

20) 허준, 「설문대할망 설화논고」, 『한국문학의 통시적 성찰』, 백문사, 1993, 552~554쪽.

란 99동 밖에 모이지 못하여 완성할 수 없게 되자, 할머니는 다리를 조금 놓아가다가 중단해 버렸다. 그 자취가 조천면 조천리와 신촌리 앞바다에 있다 한다. 바다에 흘러 뻗어간 바위 줄기-‘여’라 함-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검토해보면, 신화 파편의 이미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sup>21)</sup> 신화적 전설의 기능에 따른 증거물을 중심으로 한 진실 드러내기의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고재환씨의 안내로 송기조씨를 찾아갔다. 자그마한 방이지만 글씨 한 폭이 걸려 있었다. 활달한 성격이요 익살스런 분이란 말은 이미 들었었지만 글씨 한 폭이 표구도 안 된 채로나마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생활감정만은 운치를 지니고 있는 듯했다. 취지를 말하고 제주도 전설로서는 가장 잘 알려진 ‘설문대할망’에 대해서 우선 물어 보았다. 제보자는 이내 이 마을 남쪽 내에 놓은 돌덩이 ‘족두리석’ 이야기부터 꺼냈다. ‘족두리석’은 꼭 족두리처럼 생긴 돌인데 설문대 할망이 쓰던 족두리라 한다. 송기조씨는 이야기의 골격만을 말하고 마는 투여서 조사자들이 가끔 질문을 던져야 말이 이어져 나갔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표준어화하여 말하는 편이어서 순제주도 방언과는 거리가 있는 말씨였다.

설문대할망 감투가 요기(여기) 이십쥬(있지요). [김영돈 : 아 감투마쥬? 어디 있어마쥬?] 고지렛도(고지레 동네 입구). 기연디(그런데) 거기 경주이원흠(慶州李元欽)이 족감석(族感石)이라 새겨쥬. 경주이씨 이원흠에 대한 겨레족제(族字), 감동감제(感字), 친족이 감동해서 새긴 돌이라 썬진 게 잇긴 잇는다.

우리가 옛날(옛날) 들으니까, 설문대할망이 키도 크고 심도(힘도) 썬고(세고) 흐여난(하엿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흔착발(한쪽발)은 사라봉-사라봉(紗羅峰). 사봉낙조(紗峰落照)라고 영주십이경(瀛州十二景)의 하나에 디디고 흔착발은 저기 물장오리(장우리물)라고 거길 디디여서 산짓물에서 빨래(빨래)하다가, 산짓물에 빨래하잔(빨래하러고) 구뻍하단(꾸벅하다가) 벗어지영(벗어져서) 털어쥬다(떨어쥬다) 그렇게 말쥬니다.

그 돌을 보민 흔펜으로(한편으로) 영(이리) 모즈(帽子) 모양으로 썬 디가(테가) 잇언(있어서) [고재환 : 예, 있습니다.][김영돈 : 거 어디 있어?] 여기서 주차장

21) 고희경, 「상징해석을 통한 창세여신 설문대할망 이미지 복원」, 『구비문학연구』 2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1~20쪽.

감만 흐민(갈 만큼 하면) 바로 가까우난(가까우니까) 볼 수 잇수다. [고재환 : 가운디 영(이렇게) 보민(보면) 바로 모즈 썬넌(썬넌) 것꺄치록(것같이) 되었습니 다.] 그 모즈 모양으로 댜 거기에 경주이원흙 족감석이라 우리가 보니까 썬 이 십디다. ‘경주’라는 건 ‘경주이씨’. 원흙의 본관 ‘경주이씨’를 말하고, ‘경주이씨’ 이옌도 안하고 그냥 ‘경주이원흙 족감석’이라. 이원흙 친족덜이 감동흔 돌이라 하니 그건 이원흙 이름 나타내는 거주 그건. [김영돈 : 이원흙씨하고 설문대할 망하고 무슨?] 관계 읍습니다. 그디(거기에) 글 새기는 이만 물어 보도(보지도) 았고 이름을 나타내우젠(나타내려고)하는 것뿐입쥬.<sup>22)</sup>

[김영돈 :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어떻흐영(어떻게 해서) 만들엇댕(만들었다 고) 합니까?] 요전이 아오덜(아이들)이 전설을 썬 주시오 호기에 썬 쥬신디(주었 는데), 뤼옌(무어라고) 썬쥬싱고(썬 쥬는고) 하니, 옛날에는 여기가 하늘광(하늘 광) 땅이 부뻗다(붙었다). 부뻗는디 큰 사름이 나와서 떼여 부뻗다(떠뻗다). 떼옌 (떼어서) 보니, 여기 물바닥이라 살 수가 읍으니 꺄디로(가로) 물을 파면서, 목포 (木浦)꺄지 아니 파시민(뻗으면) 짚을(길을) 그냥 내블테인디(버릴 터인데) 그꺄 지 파부니(파 버리니) 목포도 끊어졌다.

그것은 그땀에 여기를 육지 뻗는(만드는) 법이 잘못흔 거쥬. 기연디(그런데) 설문대할망이 흑(흑)을 싸다가, 거길 메울려고 싸다가 걸어가당(걸어가다가) 많 이 떨어지민 큰오름(기생화산)이 뤼곡, 죽게 떨어지문 죽은 오름이 뤼었다, 그건 옛말입니다. [김영돈 : 어떻마썬?] 치매(치마)에, 치매에 흑(흑)을 싸다가 많이 떨어지민 한라산이 뤼곡, 죽게(적게) 떨어지민 도돌봉(道頭峰)이 뤼었다, 그건 옛날 전설이곡.

저 생각오른 이 제주도를 처음 뻗는 분이 잘못 생각흐엇어. 스방으로 흑을 지쳐서민(위로 던졌으면) 바다는 바다대로 가곡, 육진 둘러져시민(도려내졌으면) 뵈 건디, 웨 육지레(육지로) 가는디 파부뻗느냐, 나 꺄뜨민(같으면) 파지 맵생(마 시라) 흐컬(할 걸).

[김영돈 : 육지흑곡 부뻗당은에(붙었다가는)] 부뻗(붙은) 게 아니고 전부 물 바다로 보아서 하늘광 땅이 부뻗는디 천지개벽홀 때 아미영흐여도(아무리 하여 도) 열린 사름이 이실 거라 말이우다. 그 열린 사름이 누게가 열렸느냐 흐민 아 주 키 크고 썬 사름이 딱 떼어서 하늘은 우테레(위로) 가게 하고 땅을 밋트로(밋 으로) 흐여서 하고 보니 여기 물바다로 살 수가 읍으니 꺄드로(가로) 돌아가멍

22) 주석에 “족감석, 경주이원흙혜보표, 무년(族感石, 慶州李元欽惠譜表, 戊年)”라 새겨져 있었다고 하였다.

혹 파 올려서 제주도를 맨들었다 흐는디 거 다 전설로 흐는 말입쥬. [김영돈 : 하, 다 바당이었는데 예.] 예. [김영돈 : 또 속옷 이야기가 있던데 예?] 제주도에서, 속옷이 아니고 허리(치마웃 허리) 허리만 당혀 주면은 목포레 가는 드릴(다리를) 놔주겠다(놓아 주겠다). 기연디(그런데) 그걸 흐여 주질 못혀서 드릴 못 낚고(놓았고). 기여니 명지(명주)가 멧 둥(피륙 길이 단위)이 드는지 알 게 뭐야 원, 워낙 키노니까. 기영흐난 못 낚쥬(놓았지).

기연디(그런데) 그 때도 그러 말이 잇엇답니다. 만일 드릴 놓앗더민(놓았더라면) 호랑이 제와서(겨워서) 못 살 거라고. 호랑이범이 들어오거든. 헌테 제주도 에 웨 범이 읍어졌느냐 흐면은 구구곡(九九谷)이라고 아은아읍골(골까지 내린 곳)이 이십쥬. 거(그것) 백골 뒤편에서는 범이 와 살 테인디(터인데) 골 흐나히(하 나가) 부족흐니 범은 범흐지 못흐다. 육지 가도 제주도 사름신디(사람한테) 범이 맹이도(다니지도) 못흐다고, 흑내 남쟁(난다고). 제주도 사름안탄(사람한테는) 범이 아니 오라(와).

[김영돈 : 기연디 원래 제주도에 범이 잇엇단(있었다간) 어디 중국 사름이 들어완에(들어와서는) 흐 골짜기 몰아단 범들을 죽어부렀다 흐는 말도 잇는디예] 그런 말 못 들어났수다. 혼디 우리 액은(자란) 후에까지 잇엇난 게 깝죽(사슴)산뿔지(멧돼지), 곧 멧뿔지, 그것은 우리 액은 후에까지 잇어나십쥬(잇었었지요).

[다음 부분은 녹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살짝 덧붙였다. 녹음은 되어 있지 않다.]

설문대하르방이 잇어났쥬(잇었었거든). [김영돈 : 설문대하르방도 잇어마썰?] 설문대할망이 이신디(잇는테) 하르방이 웃입니까. 할망이 이시민 하르방이 잇쥬. 하르방이 잇다가,

“퀘기(고기)가 꼭 먹고 싶다.”

고. 할망이 곤는(말하는) 말이,

“한라산 꼭대기에 강 잇다가 나 말대로만 흡서(하십시오).”

갓어. 갓는디 하르방 보고,

“당신이랑 한라산 꼭대기에 가서 대변 보멍(보면서) 그것으로 냥(나무)을 막 패어 두드리멍(드트리면서) 오줌을 작작 굴김서(갈기십시오). 굴기면은 산뿔(멧돼지)이고 노루고 다 잡아질 텨쥬(터어지요).”

아닌게 아니라, 이영했더니(이리했더니) 산뿔이고 노루고 막 도망가. 할망은 자빠져 누워 잇엇덴(잇었다고). 비브름 피호젠(피하려고) 흐단 그것들은 할망 그디(그곳 陰部) 간 문떡(모두) 곱안(숨었어). 곱으니(숨으니) 이젠 그것들 잡아단

(잡아다가) 혼 일년 반찬 혼연 먹엇덴(먹었다고) 혼여.

- <설문대 할망><sup>23)</sup>

이 각편은 설문대할망이 생산의 식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대할망설화는 민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을 부부로 상정하여 성기(性器)로 물고기를 몰아다 잡는 이야기로까지 변형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내륙이나 일본 및 중국 등의 설화를 참고로 하면, 이 설화는 일본의 부사야마(富士山)을 만들었다는 다이다라보오시(大太法師), 오키나와의 거인인 아만츄우, 중국의 거인 반고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생산적 권능의 원초적 잠재력은 제주창조신화의 문화유전자다. 이 점은 이야기관의 재생에도 한 몫을 하였다.

설문대할망의 행위와 행방은 매우 임의적이다. 설문대할망의 활동 사항을 통해서 볼 때, 신화적 인물인 셈이다. 한라산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토의 창조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지왕본풀이>의 천지개벽 과정과 닮아 있다. 퍼즐처럼 해체된 것을 꿰어 맞추어야 제주도 형성의 신력(神力)과 영험성이 나타난다. 이럴 경우 설문대할망은 육지의 마고할미 같은 거녀(巨女)설화 계통에 해당한다. 환상적 수법을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육지의 그것과 달리 창조적 유전자가 화석처럼 깊게 배어 있다.

설문대할망 구전전승은 신화이기보다는 전설적 속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다른 전설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설화로 재탄생하고 있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제주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던 설문대할망의 탄생 과정이 삽입된다는, 설문대할망이 여성이기에 배필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 설문대하르방을 만들어내고, 오백장군이야기에 설문대할망이 개입하기도 한다. 이것은 거녀(巨女)였기에 그만큼의 아들들을 낳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생산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주시 오라동 설화 23」, 『한국구비문화대계』 9-2(제주도 제주시편), 1981년, 710~714쪽(오라동 동카름, 1980.11.23, 김영돈, 고재환 조사. 송기조, 남64)

신으로서 신격화 방식은 전승자들 기억 속에 지속적으로 유지된 듯하다.

(필자 : 오 대심 빌레에 파진 응동이 말이쥬예?) 응. (필자 : 건디 할머니 옛날 산신제도 해나수파?) 해났쥬. (필자 : 거문 산신제에 설문대할망 소리도 이서나수 파? 사설중예?) 낫날 해나긴 했는디 몰라. 우리 젊을 때까지 불공 드릴 때 해났쥬. 저굴막(舊左邑 東福里)인가 벨방(舊左邑 下道里) 심방이 그거 잘 해났쥬.

- <설문대할망> 중 일부<sup>24)</sup>

오백장군의 어머니 설문대할망은 굉장히 키가 클 뿐만 아니라 힘도 셤다. 흙을 파서 삽으로 일곱 번 떠 던진 것이 한라산이 되었으며, 도내 여러 곳의 산들은 다 할머니가 신고 있던 나막신에서 떨어진 한 덩이의 흙들이다. 그리고 오백 형제나 되는 많은 아들을 거느리고 살았다. 설문대할망의 아들에 대해서는 “홍년이 든 어느 해, 아들이 도둑질하러 다 나가 버렸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먹이려고 죽을 쏘다가 잘못 하여 그 커다란 가마솥에 빠지고 말았다. 아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돌아오자마자 죽을 퍼 먹기 시작하였다. (중략) 그리하여, 남편과 또 그 많은 아들을 잃어버린 설문대할망은 홀몸이 되었다.”는 것이 전한다.<sup>25)</sup> 심지어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설문대할망은 옥황상제의 말갓딸로서 제주도를 창조한 여신이다. 설문대할망은 천상에서 부왕의 명을 잘 받들어 신들과 궁녀들에게 밥과 물을 잘 주고 효성도 지극한 여신이였다.”라고 하여 설화가 아닌 창작으로까지 변모되고 있다. 설문대할망이 부모의 뜻을 거슬러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는 그 구조가 제주시 삼도동 소재 각시당 본풀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설화가 아닌 작가적 상상력에 의한 창작품이다. 확대 재생산의 측면이 여러 군데 보

24) 이성준, 「설문대할망설화 연구」, 『국문학보』 10, 국문학회, 1990, 80쪽. 제보자 김수동(여·79), 1988년 11월 16일 조천읍 조천리 3104-7 김수동 할머니 자택에서 이성준 채록.

25) 이 때 죽을 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인 설문대할망이라는 이야기가 전승된다. 이것은 신화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쟁관계, 기존 책자에서 인용 재확산의 오류 문제 등이 있다.

인다. 비극적 요소에 대해 역사적 충돌과 갈등의 소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만큼 착종이 심한데 이는 제주 특유의 구비적 기반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신과 관련된 속신도 전승된다.<sup>26)</sup>

설문대할망설화는 파편화되어 전승되었지만 본래 대모신격(大母神格)의 창세신화에 속한다. 설문대할망은 마고의 모계 어머니 이미지로 오백 명의 아들을 생산한 풍요의 여신이다. 제주도 형성과 변화의 화신이다. 아울러 인류의 생생력 상징이다. 해녀의 삶 같은 치열성을 지닌 에너지를 내뿜는다. 밀알처럼 익사라는 자기희생을 통해 진정한 부활의 약속을 보여준다. 구술상관물로서 제의성이 암시된다. 이러한 정체성을 장소예술로 승화시킨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의 창조유전자를 기리고 이어가려는 설문대할망제, 이러한 일련의 문화행위는 불가시한 원초의 심연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 방식에 다름 아니다. 신화의 구술원리가 그러하듯이 사실의 역사성에만 매달릴 수 없고 더구나 전승주체의 꿈 관련 허구성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지명과 경관 위주의 역사적 진정성과 제주민들의 구술감성을 상생시켜 살펴야 한다. 정체성을 전제로 한 창조적 신화 마인드가 요구된다.

### Ⅲ. 설문대할망설화와 스토리텔링 개발 전략

#### 1. 설문대할망신화의 가치창조

문화콘텐츠의 위력을 통해 앞서 논의한 설문대할망의 캐릭터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의 감성유전인자로 세계를 아우르는 스토리텔링의 실제로 감동을 줄 수 있다.<sup>27)</sup> 또한 보편적인 어머니 신의 이미지를 지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문화가

26)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8쪽.

27) 정진희,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국문학연구』 19호, 국문학회, 2009, 229~254쪽.

삶 자체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문화감성시대에 과거 신화 캐릭터를 새롭게 소통하는 방식이다.<sup>28)</sup> 신화를 통합적으로 보되 원형에 대한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 문화 중에서도 가장 상위의 문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분명 신화 주인공과 관련된 구술문화유산일 것이다. 설문대할망설화와 그와 관련된 장소자산 자체가 신성성과 역사성,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

설문대할망은 기존에 있던 지형지물을 활용할 뿐 아니라 새롭게 만들기도 하였다. <천지왕본풀이>처럼 개벽 과정을 말한다.<sup>29)</sup> 전승주체가 끊임없이 활인화한 것이다. 입고 있는 치마에 흙을 가득 담고 이동하여 한라산 자리에 몇 번 쏟아 부어 오늘의 한라산을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치마의 터진 틈으로 흘러내린 흙이 여기저기 떨어져 오름이 되었다. 것처럼 키가 큰 설문대할망도 죽음을 면하지는 못했다. 제주도 곳곳에 갇다는 곳을 찾아가 들어서 보니 용연에서는 발목까지 닿고, 서귀포 홍리물에서는 허벅지까지 닿더니 물장울에 들어서서는 그만 끝없이 빠져 생을 마치고 말았다. 그래서 물장울을 ‘창터진 물’이라 한다. 그 흔적이 제주도 곳곳에 그물망처럼 얽혀 짜여 있다.

이것은 제주도민들이 설문대할망설화를 전승하면서 인식하는 세계관이다. 설화를 통한 세계 인식이라 할 만한데, 제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제주를 중심으로 우도, 제주를 중심으로 가파도와 마라도, 제주를 중심으로 관탈섬, 이것이 확대되어 제주를 중심으로 추자도까지 나아간다. 육지와 관계로 말한다. 전승민들은 오늘날처럼 제주도를 한반도의 주변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 물 위에 떠서 돌아다니는 국토부동(國土浮動) 관념을 갖고 있었다고 하겠다. 마치 변시지의 그

28) 이창식, 「신라인물 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온지논총』 23집, 온지학회, 2009, 7~41쪽.

29) 아시아문화원형팀, 『동아시아의 창세신화와 스토리텔링』, 전남대출판부, 2009, 166~167쪽.

림처럼 독자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 비양도가 물 위에 떠 한림 앞바다로 다가오다가 한 여인이 ‘섬이 떠 온다.’고 소리치자 들켰다며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대로 멈춰버리게 되었다는 것도 같은 관념의 표현이라 하겠다. 이야기의 환상성과 흥미성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전승력을 통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대할망 시놉시스 - 팩션 재구와 연계】<sup>30)</sup>

첫째, 설문대할망 탄생

- 누구든 모른다. 천지왕과 연계해서 제주도가 생겨나면서 같이 탄생한 것이다.
  - 옥황상제의 셋째 딸이다(본풀이 성격).
  - 창조신으로 삼성혈과 연계해 보면 그보다 먼저 탄생하였다(씨족신화의 문제).
  - 대별왕과 소별왕과 관련이 있다(본풀이 성격).

둘째, 설문대할망 외모

- 서 있을 때 : 한라산을 굽어보고 아무리 깊은 태평양도 무릎까지 밖에 물이 닿지 않았다.
- 잠잘 때 : 한라산을 베개 삼고 한쪽 다리는 관탈섬에 걸쳤고 다른 쪽 다리는 지귀섬에 놓아 잠을 잤다. 또는 한쪽 다리는 관탈섬에 걸쳤고 다른 쪽 다리는 대정읍 앞 바다의 마라도에 놓아 잠을 자야 했다.
- 앉을 때 : 한쪽 발은 한라산을 딛고 한쪽 발은 산방산을 디디고 앉았다.
- 빨래 할 때 : 관탈섬에 빨래거리를 걸쳐 놓고 소섬을 광돌(빨랫돌)로 삼아 한라산 꼭대기를 엉덩이로 깔아 앉아 바닷물에 발로 문질러 댄으며 하였다. 한라산에 앉아 일출봉(청산(城山))을 밟고 앉아 이 두력산에 빨래를 놓고서 빨았다.
- 오줌 눌 때 : 걸쳐 앉아 쏜다.

셋째, 자식과 생산

- 오백 아들을 낳았다. 흉년이 든 어느 해 오백 형제는 돌아와서 죽을 먹다 뼈

30) 설문대할망의 신화스토리텔링 사례 짜보기(다음 카페 ‘신성제주문예창작기행’ 자료를 활용하였다. 역량 있는 작가가 나와 분야별로 구체적인 시놉시스가 창작되어야 할 것이다).

다귀를 발견하고는 어머니가 죽은 걸 눈치챈다. 막내는 한경면 고산리 차귀 섬으로 달려가 한없이 울다가 바위가 되어 버렸다. 나머지 형제들은 설문대 할망이 죽은 자리에 둘러서서 통탄하며 울다 돌이 되었다. 오백 장군과 직접 관련이 된다.

- 서귀포시 외돌개는 막내아들이 설문대할망을 지키려 바다로 나가 장군 모습으로 서 있어 외적이 침입을 막았다.
- 칠쪽꽃이 빨갭게 물든 것은 오백 아들이 흘린 피의 눈물 흔적이다.
- 차귀섬 앞 돌이 되어 아들로서 어머니를 지켰다.

넷째, 남편과 특이함

- 설문대하르방이다. 자지(性器)로 고기를 잡을 때 등장한다. 1910년대까지 제주 주요 관아 성문 입구의 돌하르방상과 관련이 있다.
- 잠버릇 : 한라산을 베개 삼고 다리는 제주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 잠을 잤다.
- 흉장난 : 흉장난이 심해 매일 치마에 흉을 담아 옮겼다. 큰 산은 한라산이 되었고 구멍 뚫린 곳에서 흘러나온 흉은 오름이 되었다.
- 키자랑 : 키 큰 것을 자랑하기 위해 깊은 물마다 들어서서 자기의 키와 비교해 보았다.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소(龍淵)가 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 보니 물이 발등에 닿았고, 서귀읍 서흥리에 있는 흥리물이 깊다 해서 들어서 보니 무릎까지 닿았다. 물장오리에 들어 갔다가 나오지 못했다.
- 화내기 : 관련 장소에서 사람들이 큰소리를 지르면 성을 낸다.

다섯째, 창조과정

- 먼 옛날, 바다 한가운데 섬이 생겨났다. 용암이 분출하여 흐르다 굳어져 바위, 동굴이 생기고 흙이 생겨 풀, 나무가 우거져 짐승이 살며 제주는 태어났다. 제주의 옛 이름 탐라는 깊고 아득한 바다의 섬나라라는 뜻이다. 또한 영주는 서불의 불로초 탐사설에서 비롯되었으며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도 불렀다. 이 때 설문대할망은 나타났다. 설문대할망은 제주 성씨 신화인 삼성신화보다 먼저 탄생했다.
- 옥황상제
- 삼성혈
- 대별왕과 소별왕<sup>31)</sup>

■ 바다 창조

- 태평양 : 태평양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 쳤다.
- 장강수 :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에서 오줌을 누려고 앉았을 때 포수에게 쫓기던 사슴이 할머니의 큰 보지(性器)를 굴로 착각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간지러워 오줌을 누니 냇물(장강수)가 되었다. 한라산과 성산포 앞바다를 잇는 물줄기가 냇물 모양이다.
- 표선해수욕장 : 표선면 해안은 물이 깊어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마을까지 들어오고, 해마다 아이들이 빠져 죽는 위험한 곳이었다. 설문대할망은 나무와 모래로 백사장을 만들어주어 바닷물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주었다. 지금도 백사장의 모래를 헤쳐 보면 굵은 나무들이 썩은 채로 깔려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한다.
- 영장매코지 : 제주 사람들은 육지를 동경하였다. 그러나 바다가 가로 놓여 육지를 드나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설문대할망은 너무 몸이 커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속옷을 만들어 준다는 사람들의 말에 다리를 놓다 속옷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소문에 다를 만들던 것을 그만 두었다. 조천리에 있는 영장매코지는 이 할머니가 놓으려던 다리의 흔적이다. 신촌리의 암석에 있는 큰 발자국은 그때의 자취다. 모슬포 앞바다에 있는 바다로 뻗친 바위 줄기가 바로 그 흔적이다. 추자도바다에 흘러 뻗어간 바위줄기와 조그마한 섬에 남아있다.

■ 산 창조

- 한라산 : 설문대할망은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섬에 한라산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치마폭에 가득 흙을 퍼 나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라산이다. 흙을 파서 삼으로 일곱 번 떠 던진 것이 한라산이 되었다.
- 산방산 : 한라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은하수를 만질 듯 높이 솟아올라 봉우리를 꺾어 던졌더니 그렇게 떨어져 산방산이 되었다. 빨래를 하려 한라산 꼭대기에 걸터앉으니 산꼭대기가 엉덩이를 찢려 화가 난 설문대할망은 꼭대기를 던져 버렸다. 이게 산방산이 되었다. 산방산 높이와 백록담 깊이가 같다. 산방산 둘레와 백록담 둘레가 같다.
- 두력산 : 두력산은 한라산과 서로 대칭이 된다. 한라산은 영산(靈山)이라 장군이 난다고 하며, 두력산에서는 이 장군이 탈 용마(龍馬)가 난다고 한다. 그

31) 현용준, 「천지왕본풀이」,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35~43쪽.

래서 두력 산을 신성한 바위로 생각해서 그 가까이에서는 언동을 조심한다. 설문대할망이 빨래를 걸쳐 놓았던 곳이다.

- 오름 : 오름은 우리말 오름이다. 그 뜻은 평지보다 뚜렷하게 높이 솟아 있는 땅의 일부분이다. 곧 오름이 오름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방언사전』(현평호)에는 오름이라 표기 되어 있다. 『탐라지』에는 악을 오름이라 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치마폭 터진 구멍 사이로 떨어진 흙들은 군데군데 떨어졌는데 그것이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지막한 오름이다. 설문대할망이 신고 있던 나막신에서 떨어진 한 덩이의 흙들이다.
- 궁상망오름 : 설문대할망이 수수범벅을 먹고 똥을 썼는데 똥이 굳어 오름이 되었다. 궁상오름 모양이 똥 모양이다.
- 다랑쉬오름 : 구좌면 다랑쉬는 산봉우리가 움푹하게 패어져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흙을 집어 놓고 보니 너무 많아 보여서 주먹으로 봉우리를 탁 쳐 버렸더니 움푹 패어진 것이라 한다(세화리에 있는 표고 383미터의 오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다랑쉬오름이라 적혀 있고, 『탐라지』에도 다랑쉬오름이라 적혀 있다. 진성기는 ‘달처럼 산봉우리가 둥글다 하여 다랑이라 불린다’라 하였다).

■ 섬 창조

- 섬 : 치맛자락에 흙을 담아 바다의 이곳저곳에 쌓았는데 주위에 있는 여러 섬이 되었다.
- 우도 : 설문대할망이 성산일출봉에 다리를 걸쳐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오줌이 마려웠다. 급한 나머지 성산읍 오조리 석산봉을 한쪽 발로 딛고 다른 한발로는 성산일출봉을 디디고 앉아 오줌을 싸버렸다. 그 오줌줄기의 힘이 얼마나 세었는지 땅이 폐이며 큰물이 흘러 소섬과 성산 사이가 벌어졌다. 그래서 그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와 우도가 섬이 되었다.

■ 바위 창조

- 콧구멍동굴 : 설문대할망이 백록담을 베개로 하여 누워 잠이 들었다. 갑자기 몸이 간지러워 발을 뻗었다. 그 발가락이 섬 절벽에 박혀버렸다. 그때 생긴 구멍이 범섬의 콧구멍동굴이다. 고근산에 허리를 대고, 다리를 범섬에 놓아 잠을 자다 다리를 뻗었는데 발가락이 앞에 있던 섬에 구멍이 두개가 생겼다. 이를 범의 콧구멍을 닮았다하여 콧구멍동굴이라 부른다. 보목리 쉼섬에 커다란 구멍이 두 개 뚫려 있는데, 이것은 이 할머니가 누울 때 발을 잘못 뻗혀 생긴 것이다.

- 감투 : 제주시 오라동 한내(漢川, 고지렛도) 위쪽에는 큰 구멍이 팬 바위가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쓰던 감투라 한다.
- 등경돌 : 성산 일출봉에는 많은 기암이 있는데 그 중에 바위에 큰 바위를 얹어 놓은 듯 한 기암이 있다. 설문대할망이 길쌈을 할 때에 집짓불(또는 솜불)을 켜던 등잔이다. 이 바위를 등경돌이라 한다.
- 솔덕바위 : 애월면 곽지리에 흡사 솔덕(솔다리, 돌 따위로 솔전이 걸리도록 놓는 것) 모양으로 바위 세 개가 세워져 있는 곳이 있다. 이것은 설문대할망이 솔을 얹혀 밥을 해 먹었던 곳이라 한다. 할망은 밥을 해 먹을 때 얹은 채로 애월리의 물을 떠 넣었다 한다. 송당 목장에 있는 커다란 바위 세 개가 있는데 설문대할망이 밥을 하기 위해 걸었던 솔덕이다.

여섯째, 죽음 이미지

- 물장오리 : 설문대할망은 물이 깊다는 소문이 나 있는 물에는 모두 들어가 봤다. 섬 안에 있는 모든 물들의 깊이를 재고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 물을 재려고 들어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 죽 솔에 빠져 : 5백 명의 아들을 낳아, 그 아들들을 먹이려고 큰 솔에 죽을 꿰이다가 잘못해서 빠져죽었다.
- 창조 실패 :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를 통치하려는 큰 뜻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 속에서 세 귀인이 나와 삼읍을 다스리자 뜻을 이루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일곱째, 신격화

- 한라산신제 신격 좌정(창조신과 산신)
- 주요 본풀이당 신격으로 변이
- 제주민의 제의 대상(조선조까지)

설문대할망설화는 탄생 - 부부결연 - 창조행위 - 죽음의 서사담론이다. 다만 신격화의 대상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만큼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이는 육지의 거인 여성신과 흐름이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대할망 스토리텔링 적용은 다양하게 추진 가능하다. 사례를 통해 국제도시 제주도의 공감 파급효과를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다. 창조도시로서 제

주 전체의 문화콘텐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sup>32)</sup> 설문대할망 사례가 제주 문화의 세계화와 관광화에 활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나온 설문대할망 관련 문화콘텐츠 창작물은 아직 한계가 많아 보인다.<sup>33)</sup>

설문대할망의 디지털콘텐츠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원형자원 문화콘텐츠 확보와 관련 현장 발굴에 이어, 이를 이야기로 재구하는 결과로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아울러 기존 본풀이의 전승에다가 지금 여기의 감동적인 캐릭터화에 있다.<sup>34)</sup> 앞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등으로 제주 제주를 새롭게 브랜드화 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 브랜드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화를 추진해야 한다.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도 장단기 문화비전사업과 맞물려 사업을 추진하되 중앙정부 국책사업과 연계해야 통합선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적어도 설문대할망문화특구 개념으로 제주돌문화공원에서부터 한라산까지 테마코스 정립이 필요하다. 제주돌문화공원의 킬러콘텐츠화, 설문대할망의 길, 설문대할망조각광장, 설문대할망마을 지정 등 다양한 문화관광 브랜드가 필요하다. 설문대할망은 제주의 예술적 아이콘이다. 지역발전의 연계프로젝트와 시민의 공감대 확산 운동이 간절하다. 설문대할망의 유무형문화유산은 제주의 또다른, 오래된 미래의 가치라는 점이다.

## 2. 설문대할망제의 집중과 선택 : 설문대할망제의 발상전환과 유무형문화재 고부가가치

설문대할망제<sup>35)</sup>에 대한 회고의 글에서 백운철은 상상력, 모성애, 영혼성(영성), 천제성(天祭性) 등을 들었다.<sup>36)</sup> 제주돌문화공원의 설문대할망

32) 이창식, 「김대성과 불국사, 석굴암 이야기 시놉시스」, 『신라인물 김대성의 원형과 스토리텔링 창작』, 신라문화연구소, 2011, 166~176쪽 참조.

33) 양영수, 『세계 속의 제주신화』, 보고사, 2011.

34) 문무병, 「설문대할망제 본풀이」, 『설문대할망제』, 제주돌문화공원, 2011, 46~50쪽.

35) 2011년 5월 15-17일 제주돌문화공원(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에서 열린다.

제가 올바른 모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주도다운 독특한 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제주도 지역문화 담론을 살피면 선편을 잡은 흔적을 볼 수 있으나, 이를 집중하고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노력은 미흡하였다. 설문대할망제를 중심으로 하여 연계되는 문화산업의 르네상스를 가져 올 수 있다. 제주지역의 설문대할망제와 지역문화를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설문대할망축제가 문화관광의 세계적 매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sup>37)</sup> 문화상품으로서의 축제는 방문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방문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편익이 있어야 한다.<sup>38)</sup> 축제의 상품력에 대한 자원화 방식에 전문성을 높이고 관광상품화의 독특함을 위해 캐릭터 작업 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을 축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놀이의 지역색이 축제의 소재와 주제, 내용 및 형식에 담겨져 있을 때만이 설문대할망축제의 정체성과 예술적 개성이 표출될 수 있으며 관광매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설문대할망제의 주요 이력과 항목은 다음과 같다.

- 2004.5.15 제주돌박물관 설문대할망제 지냄(설문대할망신화 소통)
- 2005.5.15 설문대할망제단에서 설문대할망제 지냄(해주스님 등)
- 2006.5.15 설문대할망제 지냄(도범스님 불공, 심방의 굿 등)
- 2007.5.15 설문대할망제 지냄(설문대할망 상징탑 앞, 다례제, 탑돌이 등)
- 2008.5.15 천제 형태로 설문대할망제 지냄(다례제, 제주소리 한마당, 전통음식 체험 등)

36) 백운철, 「설문대할망제를 되돌아보며」, 『설문대할망제』, 제주돌문화공원, 2011, 4~11쪽.

37)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신화 중 5가지 이야기」, 『설문대할망제』, 제주돌문화공원, 2011, 52~61쪽.

38)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설문대할망에 대한 흡인력, 전문적 지식인 양성, 옛 이야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항목 개발이 요구된다.

·2009.5.15 천제 형태로 설문대할망제 지냄(소원탑 쌓기, 신화세미나 등)

·2010.5.15 설문대할망제 지냄(앞굿, 봉굿, 뒷굿 등으로 전개, 신화세미나)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린 설문대할망제는 피칭워크샵 형태의 발상이 절실하다. 수요자 중심의 기획이 요구된다. 지리적 접근은 제주도가 최적지다. 축제관광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방문객의 축제참여 욕구 및 동기, 사회 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축제관광행태 등을 조사하여 준비해야 한다. 곧 방문자를 중심에 두고 방문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방문자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축제에 반영하는 시장지향적 관점이 축제의 관광상품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외관광객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신화축제라는 테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축제상품과 관광수요를 연계시킬 수 있는 관광스토리텔링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 여건 진단, 홍보, 광고, 정보망, 적정가격 정책, 밀도 있는 관광서비스 구축 등이 요구된다. 이른바 제주맞춤 투어리즘이 설계되어야 한다. 설문대할망축제는 잠재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었으나 정작 중요한 것으로 어떻게 수요자 만족으로까지 다가갈 것인지를 고민하지 못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제주신화학적 고민과 신화축제에 대한 확대 접목의 시도가 필요하다.

제주지역 설문대할망축제와 관련된 전문 축제 인프라 구축과 활용 지원이 절실하다. 축제를 추진하는 축제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축제장의 공간 구성 및 시설 등과 같은 축제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연계 관광시설, 오락, 쇼핑, 음식, 숙박, 교통 등 관광객 수용체계가 구비될 때 먹을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놀거리, 살거리 등이 오감 감동으로 다가갈 것이다. 설문대할망축제의 상품화는 기존의 단순한 축제 기획·운영 및 홍보전략에서 벗어나 축제상품, 축제관광객수요, 관광마케팅, 관광수용체계 등 축제의 전 부문에 걸쳐 역동적인 시각

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대할망 신화축제를 보면 제주도의 미래가 보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대할망축제의 원형에 대한 예술적 공유성이 시급하다.<sup>39)</sup> 특히 제주도 사람들의 삶에서 놀이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 없이는 새로운 콘셉트를 찾을 수 없다. 설문대할망축제의 큰 그림과 축제항목의 구체적인 작은 그림에 이르기까지 지향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설문대할망 신화성, 제주도신화의 역동적 맥락, 심미적 대상, 제주문화환경, 공동체 경험을 창조화하는 과정, 축제기획기술력 등이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앞 장에서 논의한 설문대할망신화의 진정성과 스토리텔링의 매력성을 살려 항목마다 연계해야 한다.<sup>40)</sup> 혁신적 축제마인드가 강조되어야 한다.

신화축제로서 설문대할망축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축제관 구성하기가 요구된다. ① 세계적 설문대할망축제의 정체성 확립, ② 설문대할망축제 추진위의 전문성 제고, ③ 설문대할망축제 소프트항목콘텐츠 창작성 제고, ④ 설문대할망축제 관광상품성 개발과 내실화, ⑤ 설문대할망축제의 세부항목콘텐츠 발굴과 평가작업, ⑥ 설문대할망축제의 브랜드화 사업, ⑦ 설문대할망축제 문화기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 ⑧ 축제 기간 이외 관광체험 기반 연구, ⑨ 제주도 지역축제 중 차별화된 설문대할망 특구 지정 문제, ⑩ 제주신화의 지속적인 학술회의 병행, ⑪ 제주신화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병행, ⑫ 제주돌문화공원(백운철단장)의 제주 정체성 확립 상징화 작업 등이다. 이를 일련의 장단기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설문대할망축제의 명품화를 위하여 제주학의 시각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설문대할망축제의 제주학적 검토와 경쟁력

39) 김기덕, 「문화원형의 층위와 새로운 원형 개념」, 『인문콘텐츠』 6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 55~71쪽.

40) 스토리텔링은 생산자에 의해 창작되거나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수용자 또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효과적인 담화방식으로 가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창식, 앞의 책, 64쪽.

강화 차원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설문대할망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브랜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 설문대할망축제의 패러다임은 기존 거론된 설문대할망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작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되, 제주도의 지역문화 잠재력과 지금의 입장을 전제해야 한다.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지도자의 인식공유와 추진의지의 전략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신화축제에 대한 종교적 신입관을 가진 비판에서 자유로운 추진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설문대할망축제는 주민들, 관광객들, 관련 축제전문가들이 한 데 어우러져 신화문화의 현장과 상품을 창조하고 이를 공유하며 감동과 희열을 나누고 누리는 것이다. 신화에 대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이미지니어링(imagineering)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설문대할망축제의 항목연출은 창의성, 참신성, 정통성, 차별성, 현재성 등이 내재돼 복합적으로 분출하는 표현양식이다.<sup>41)</sup> 신화의 메카, 제주도를 부각시켜야 한다.<sup>42)</sup> 이를 상징적으로 설문대할망축제 이미지로 통합하여 담아내는 전략이 절실하다.<sup>43)</sup>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정책 대안이다. 이를 공감하는 역동적 홍보, 여론 수렴, 강력한 자신감 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설문대할망제가 기획되고 추진하는 과정을 확인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지속적인 논의와 향유층 반응을 반영하였는지 의문이다. 제주지역 설문대할망축제의 미래는 매우 긍정적인 편이다. 전국 규모의 축제 이미지를 위해 혁신적 감각과 지역문화의 장점에 대한 통찰이 축제기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인문콘텐츠학적 검토와 지역 현안 또는 제주도 장단기발전계획안의 연장선에서 설문대할망축제의 가

41) 이창식, 「지역문화콘텐츠의 원형자원과 품바축제」, 『공연문화연구』 16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8, 301~329쪽.

42) 제주도 모 단체에서 신화축제를 시도한 바 있으나, 축제다운 현재성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실패했다.

43) 이창식, 「지역문화콘텐츠의 원형자원과 품바축제」, 『공연문화연구』 16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8, 328쪽.

치 제고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소스인 신화자원의 가치창출과 발상의 전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지속적인 신화학술회의 - 2012. 5 국제신화학술회의(신화학자대회 성격) 준비 - 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제주도 문화발전 계획과 맞물려 설문대할망축제 항목을 선택과 집중 양면으로 정리해야 한다. 신화의 전통적 저력, 지역민들의 눈높이, 재원 확보, 대외적 제주도 이미지 연계성, 지역 제주맞춤 장인 이미지 등 전반적인 집중화를 보여야 한다. 우선 설문대할망축제 관련 문화콘텐츠 부문은 전통창조도시 만들기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고부가 가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 제주돌문화공원의 제주신화콘텐츠 개발 중심지 육성 : 조각, 증거, 캐릭터, 축제 항목 등 동시다발 연계<sup>44)</sup>
- 설문대할망 관련 세부 스토리텔링창작 프로젝트 발주 : 세계적인 공모도 가능함
- 설문대할망축제 연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기획서 작성 : 제주신화콘텐츠학회가 설립되었으면 좋겠음
- 설문대할망 등 뮤지컬, 오페라 등 제작기반 조성 : 중국 인상프로젝트 참고
- 설문대할망 관련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클러스터 특화 사업 추진 : 지역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
- 제주돌문화공원의 제주신화스토리텔링 박물관 건립과 멀티파크화 : 제주신화문화대학 등 설립

설문대할망축제는 제주도를 신화의 섬(상상력의 보고)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제주도 특유의 지역축제가 될 수 있는데 재정확보와 집중적인 핵심 프로그램 육성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가는 대안이다. 경제적 가치도 엄청나리라 전망한다. 인류의 신화생태천국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보다 좋은 소스가 없다. 신화 섬 제주도는 원

44) 제주돌문화공원, 「2008 설문대할망 5가지 신화영상물 제작(김남홍 그림, 고용완 제작)」, 『설문대할망제』, 제주돌문화공원, 2011, 62쪽.

소스멀티유즈(OSMU)의 생명력-세계 7대 자연경관 등재와 함께-이 있는 고향이다.

### 3. 설문대할망제의 세계화와 브랜드 전략: 설문대할망제에서 설문대할망신화축제로

설문대할망축제는 경쟁력이 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등재와도 연계해야 한다. 실제로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올레길 등 기존 관광인프라를 활용하되, 신화감성의 가치부여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의 트렌드에 알맞다. 설문대할망축제 문화산업화는 제주지역의 또 다른 혁신과제라고 보아야 한다. 제주도 발전방향과 연계한 창조 부문들에 대하여 지자체 실무자, 축제위, 출향인사, 전문가, 지역문화계 인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피칭워크숍이 전개되어야 한다. 설문대할망과 관련한 항목에 대하여 지역 예인 1인 1종목 키우기 운동이 필요하며 제주학적 콘텐츠산업의 마인드가 요구된다. 이러한 브랜드 만들기의 행위 자체가 제주도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주도하는 주체는 주민이다. 소비의 1차 대상을 중국인-일본인으로 삼아야 한다. 설문대할망축제의 주체는 제주문화를 사랑하는 누구나가 될 수 있다.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신화에 대한 스토리텔링마케팅이 절실하고 이를 추진하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sup>45)</sup>

설문대할망제추진위원회는 이를 고민하고 실천하여 자부심을 느끼는 특별자치도로서 위상을 높여야 한다. 곧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도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브랜드 뿌리내리기가 강조되어야 한다. 설문대할망축제는 현재 이벤트성 공동체 행사로 경쟁력이 있다. 명품 설문대할망축제가 되기 위해 발상의 전환과 제주도 지도자들의 혁신적 감각이 절실하다. 열린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

45) Story Finding(검증과 생산의 측면), Story Telling(가공과 유포의 측면), Story Storing(반응과 평가의 측면) 등 피칭워크숍 인식 필요.

는 설문대할망축제의 원형가치 발굴과 의미부여의 축제 문화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특히 지역지도자의 발빠른 실천 추진력이 보태져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우근민 지사)의 세계적인 2011년부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공언도 주목된다.

설문대할망축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것은 지역성과 현대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해온 기존 설문대할망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축제 항목을 다시 살펴보았다. 문화콘텐츠산업의 가능성과 미래성을 거듭 제안하는 것이다. 설문대할망축제는 제주지역에서 지적재산권 선점을 하였다. 후속작업을 통해 제주도의 또다른 설문대할망축제와 세계신화축제의 랜드마크적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로 키워야 한다. 브랜드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지역민, 외부 전문가, 출향인사 등의 의지를 모아 지역축제로서 설문대할망축제의 정통성과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 신화 관련 유형장소성과 제주돌문화공원의 예술성의 가치를 전제로 문화발전 장단기 계획 속에 반영되어 설문대할망축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가장 현안 문제는 축제항목에 대한 예술적 세련성과 소비자 위주의 맞춤형 적용에 있을 것이다. 설문대할망축제의 새로운 기획은 축제콘텐츠 창작과 확대라고 보았다. 설문대할망축제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속에서 소프트웨어로서 더 많은 설문대할망축제 관련 예술콘텐츠가 공연 또는 상연을 고려하여 나와야 할 것이다. ‘제주도 신화창조도시(가칭)’ 등도 만들어 혁신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설문대할망을 비롯한 제주도 신화 관련 문화상품을 2020년까지 2020품목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이다. 제주도 신화상품 10만 개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설문대할망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자구책을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의 스토리텔링 창조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sup>46)</sup> 매력적인 브랜드의 특징은 반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46) 제주돌문화공원 홈페이지(<http://www.jejustonepark.com>).

끊임없이 재창조의 작동성과 변화욕구의 참신성이 내재되어 있다. 일찍 설문대할망 자체가 이러한 요소들을 시사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창조적 유전자는 제주도의 미래 이면서 대한민국의 꿈 자원이다.

설문대할망축제는 신화축제의 이미지를 확대해야 한다. 이제 제주도가 강력하게 추진하되, 구술신화 관련 축제콘텐츠에 대한 전문가적 기획력과 제주 사람들의 창조적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외형상으로 제주도 지역이미지 고양을 통한 문화관광수입의 확대 그리고 지역의 잠재된 문화역량 제고를 구축하는 데 있다. 내재적으로 신화감성의 이벤트형 축제의 감수성, 난장성과 소비성, 치유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설문대할망축제에 대한 역사성과 지역성을 담지한 원형자원 발굴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문화감성전문가를 길러내야 한다. 제주도민, 제주대학교, 제주돌문화공원, 신화학자, 예술가 등 눈덩어리 굴리기의 컨버턴스 수행이 필요하다.

제주도에는 설문대할망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민속학, 공연문화학, 지역학, 인문콘텐츠학 등의 전문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 설문대할망축제의 신화적 융합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고 앞으로 과제이기도 하다. 설문대할망에 대한 구술문화와 구비문학의 기반을 새롭게 탐색해야 하는 과제와 설문대할망축제의 세계화 문제는 통합적 학제 연구와 동시다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 전략이 우선해야 한다. 창조적 축제 가꾸기 동참을 이끌기 위해 축제포럼이 지속적으로 열려야 한다. 공감적 전승과 지역적 소통이 필요하다. 신화축제의 강점을 살려 복합유산적 가치로 세계화의 견인차로 전개해야 한다.

- 제주도신화 복원과 마을 신화유적 연계 재현 : 본풀이의 본향 회복
- 제주돌문화공원의 신화 상상력을 장소성과 신화메카 홍보전략 : 신화축제의

## 진정성 확보

- 설문대할망축제를 활용한 쇼핑몰 구축, 인프라와 소프트 조화 : 제주도 신화 특구 조성, 휴가철 제주신화인문학 강좌(제주돌문화공원 내 마련)
- 설문대할망 관련 문화마을 만들기와 지역 특산품 연계사업 : 신화 관련 지방문화제, 국가문화제, 세계문화유산 유무형문화제 등제목록 등 제검토
- 설문대할망 캐릭터의 브랜드화 작업 : 재산권 특허 신청
- 설문대할망 관련 문화관광상품 제작과 판매망 마련 : 크루즈상품과 같은 교류관광 만들기
- 제주신화의 독창성 있는 스토리텔링 공모와 센터 설립 : 제주돌문화공원 내 신화문화대학 설치

제주신화에는 특유의 고유인자가 있다. 제주도의 활성화는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정책방향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론의식용 집행방향도 역기능으로 작용된다. 제주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특수성 부각을 위한 오래된 미래자원 중 하나가 설문대할망 유산과 제주돌문화공원 아이콘이다. 신화의 상상력은 기계공학, 정보공학, 유전공학이라는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예술 시뮬레이션 시뮬라크르로 살아난다.<sup>47)</sup> 그러나 이들 유산의 홍보가 얼마되지 않아 일방향성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48)</sup> 그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제주도 신화와 문화유산적 소재화, 신화축제 재현, 신화스토리텔링 체험화 등 차별화된 항목 설정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지역적인 기존 여건의 상상력과 예술적 심미성이 강조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이 될 것이다. 설문대할망축제는 제주도 문화 여건상 필연적인 결과물에서 나온 것이다. 설문대할망축제는 미래지향적이다. 가장 제주적인 세계축제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그 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승주체를 고려하여 관련 문화운동가들의 목숨론이 반드시 보태져야 한다.

47) 진중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휴머니스트, 2008, 9쪽.

48) 이창식, 「지역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가치창조」, 『어문논총』 5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50쪽.

설문대할망축제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계승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설문대할망축제에 대한 학술 작업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 수준의 학술회의가 매년 개최되어야 한다. 제주신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킬러콘텐츠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설문대할망축제에서 정체성의 검증은 물론 팩션 시각에서 제주신화학의 포럼 사업이 절실하다.<sup>49)</sup> 신화축제는 제주도 사람들의 고유문화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적 가치를 온리원(only one)의 시각에서 주목하여 다각적인 활용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찾아야 한다. 신화 활용의 명품론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설문대할망축제 자체의 문화네트워크의 구성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지정되었다. 신화를 경관자원과 연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신화창조도시로서 제주도상이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설문대할망축제-제주돌문화공원은 이를 입증해 감-는 세계적으로 목숨 걸고 키워야 하고 이에 부합하는 창조적 마인드가 담론화되어야 할 것이다.<sup>50)</sup>

#### IV. 맺음말

설문대할망은 신화적 기억의 저편과 꿈꾸기의 진정 관계 속에 존재하는 신격(神格)이다. 제주 전승주체는 찬탄하면서도 짙은 아픔이 배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설문대할망설화는 신화적 진실이 감동의 지속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가 꿈의 신화섬이라는 랜드마크를 확보할 수 있다. 감성창조의 섬, 그 활인(活人)의 아이콘에는 제주신화가

49) 이창식, 「제주도의 신당과 신화」, 『로컬리티의 인문학』 7/8호,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50) 이 글은 제주돌문화공원 신화학술회의(2011. 5. 14. 조현설, 김현선, 권태효 등)에 발표한 것과 중국 운남성 이족창세신화학술회의(2011. 8. 16. 추송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있다. 세계문화유산 1번지가 되기 위해 신화의 가치창조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설문대할망의 브랜드는 가치창조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다. 제주 본풀이는 세계 수준급의 무형유산이다. 제주신화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화가 시급하다.<sup>51)</sup>

설문대할망설화에는 민중의 절대적 초월자라는 점에서 신비성과 환상성이 있다. 이 점 때문에 일찍 많은 작가들에게 주목되었다. 설문대할망설화 전승은 문화자원의 진정성과 흥미로운 현대적 매력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대할망의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 그에 대해 신화문화론(神話文化論)의 시각에서 검증하고 이를 OSMU(One Source Multi Use)의 문화콘텐츠 창작분야와 관련 축제상품의 세계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전설의 물적 증거를 보이는 설문대할망 관련 장소자산 곧 자연경승유산과 상상력 등을 IT와 학문적 융합을 구축하고, 설문대할망의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스토리텔링뱅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설문대할망 스토리텔링 창작에는 감성, 재미, 환상 등 창조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설문대할망의 지적재산권 확보는 정체성의 사실 근거와 제주문화 기반 위의 상상력에 좌우된다. 설문대할망 스토리텔링 구상과 문화상품 제작과 홍보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인물콘텐츠 확보는 목숨론, 온리원론, 명품론에 달려 있다. 설문대할망신화학회 추진, 설문대할망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정립, 설문대할망과 제주고도유산 활용의 문화관광사업 추진, 제주돌문화공원의 장소예술성과 공연화 등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 발굴, 설문대할망 스토리텔링 시놉시스 전시관 상영방안 제시, 설문대할망 브랜드 관련 상품 등록 방안, 신화캐릭터 상품 발굴 등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 방면의 전문가 의견과 산학연관 합동연계사업이 동시다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설문대할망의 신화감성의 성격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51) 제주 당과 당본풀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당위성에 대하여 원고를 따로 준비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설문대할망설화는 전설과 민담의 재편과 변이가 이루어졌으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창세신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한라와 탐라 형성의 어머니(신화여성성)라는 특성은 다양한 화소의 매력적인 유전자로 인해 제주돌문화공원이라는 테마파크를 만들어냈다. 제주 대표 아이콘이 되었다. 스토리텔러와 신화장소성의 이미지화가 상생된 신화박물관인 셈이다. 더욱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 지속과 변화된 의례적 요소가 설문대할망제로 재현되었다. 설문대할망제는 세계신화축제로 진전하기 위해 제주돌문화공원이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제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애니멘터리, 백록담 오페라 등으로 제주 여성성이 여러모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현대화하고 있다. 신화적 상상력은 제주돌문화공원이 보여주고 있듯이 문화산업의 원천이 되고 있다. 설문대할망제가 제주돌문화공원과 함께 21세기 제주문화의 세계화 중심 과제로 추진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 정책으로써 최우선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접수일 : 2011.12.30 / 심사일 : 2012.01.04 / 게재확정일 : 2012.01.26

K C I

<참고 문헌>

- 고혜경, 「상징해석을 통한 창세여신 설문대할망 이미지 복원」, 『구비문학연구』 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 김기덕, 「문화원형의 층위와 새로운 원형 개념」, 『인문콘텐츠』 6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
- 문무병, 「설문대할망제 본풀이」, 『설문대할망제』, 제주돌문화공원, 2011.
- 박종성, 「비교신화의 관점에서 본 설문대할망」, 『구비문학연구』 31집, 한국구비문학회, 2010.
- 백운철, 「설문대할망제를 되돌아보며」, 『설문대할망제』, 제주돌문화공원, 2011.
-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이기상, 「지구 지역화와 문화콘텐츠 - 지구촌 시대가 기대하는 한국문화 르네상스」, 『인문콘텐츠』 8집, 인문콘텐츠학회, 2006.
- 이성준, 「설문대할망설화 연구」, 『국문학보』 10집, 국문학회, 1990.
- 이인화 외, 『디지털스토리텔링』, 황금가지, 2006.
- 이창식, 「설문대할망」,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8.
- 이창식, 「지역문화콘텐츠의 원형자원과 품바축제」, 『공연문화연구』 16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8.
- 이창식, 「김이사부의 정체성과 스토리텔링」, 『이사부 활약의 역사성과 21세기적 의의』, 강원도민일보, 2008.
- 이창식, 「신라인물 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은지논총』 23집, 은지학회, 2009.
- 이창식, 「서불전승의 정체성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동아시아고대학』 12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05.
- 이창식, 「서불설화의 동아시아적 성격」, 『어문학』 88, 한국어문학회, 2005.
- 이창식, 「신물이 탐하는 매력적인 여사제 - 수로부인」,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4, 휴머니스트, 2008.

- 이창식, 「김대성과 불국사, 석굴암 이야기 시놉시스」, 『신라인물 김대성의 원형과 스토리텔링 창작』, 신라문화연구소, 2011.
- 이창식, 「지역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가치창조」, 『어문논총』 5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장한철, 『표해록』(1771년 1월 5일).
- 전경수, 「탐라신화의 고금학과 모성 중심사회의 신화적 특성」, 『세계 신화의 이해』, 소화, 2009.
- 정진희,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국문학연구』 19호, 국문학회, 2009.
-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제』(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진기록자료집), 2011.
- 조현설, 「마고할미, 개양할미, 설문대할망」, 『민족문학사연구』 41호, 민족문학사연구회, 2010.
- 진성기, 『남국의 신화』, 일지사, 1968.
- 진중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휴머니스트, 2008.
- 최혜실, 「문화기술과 스토리텔링의 결합」,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200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제주도편), 1980-1981.
- 허남춘, 「본풀이의 과학과 철학」,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탐라문화연구소, 2011.
- 허춘, 「설문대할망 설화논고」, 『한국문학의 통시적 성찰』, 백문사, 1993.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현용준, 「천지왕본풀이」, 『제주도무속자료사건』, 신구문화사, 1980.

## Abstract

*Myth little imaginative power and Culture contents of Seolmundae-Halmang Tale /  
Lee, Chang Sik*

It is the giant type goddess who is handed down that the Seolmundae-halmang created jeju Island. As for the Seolmundae-halmang tale(myth), there is the number of to secure land mark called a myth of what a myth little truth acts with a durability of emotion, and there is it, and jeju Island borrows from standing. As for the absolute transcendence which is popular in Seolmundae-halmang tale, there is a mystery result ring-shaped anger in a respect. because I have to switch to the field of Culture contents creation and a globalization of a connection festival product.

Seolmundae connection place assets to show real evidence of a tradition are i construct IT and scientific integration, and a myth of ,Seolmundae-halmang writes down a picturesque scenery miscarriage and an imaginative power back immediately, and I be understood and make Storytelling bank, and to do an imaginative power. Seolmundae-halmang tale be devoted to what is propelled with globalization center assignment of jeju culture and jeju dol-culture Park for the 21st century by doing with the jeju stone culture park and does about a convergence with first priority with jeju specialty self-government morality future stratagem policy.

In Seolmundae-halmang memory of the living, breathing mythical gods. God even in our dreams alive and breathing. Jeju Island, people Seolmundae-halmang tale to worship and accept the pain. Seolmundae-halmang tale continued to impress the truth of the myth is functioning. Jeju is an island of myths. Such images can be achieved locally. World Heritage Area to become the highest value of Seolmundae-halmang is very important to re-create. Especially Seolmundae-halmang tale that should be at the heart of value creation is the keyword.

Key words: Seolmundae-halmang tale, Culture contents, Storytelling, jeju, OSMU(One Source Multi Use).